

박진성 Jinsung PARK (b.1982-)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 졸업
 동의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 수료
 동의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 개인전 |

- 2024 MISTER (맥화랑, 부산)
- 2022 HESTORY (맥화랑, 부산)
- 2020 아는사람 (맥화랑, 부산)
- 2017 박진성개인전 (SOO갤러리, 대구)
- 2017 자가치유 (갤러리WOO, 부산)
- 2017 박진성개인전 (SOO갤러리, 대구)
- 2015 박진성개인전 (박영덕화랑, 서울)
- 2013 박진성개인전 (갤러리송아당, 서울)
- 2012 박진성개인전 (SOO갤러리, 대구)
- 2011 아저씨 (갤러리FORM, 부산)
- 2010 박진성개인전 (SOO갤러리, 대구)
- 2010 상실의 도시 (CYART갤러리, 서울)
- 2009 이상한서커스 (갤러리DAMI, 대구)
- 2009 이상한서커스 (영광갤러리, 부산)

| 그룹전 및 아트페어 |

- 2024 화랑미술제 in 수원 (수원컨벤션센터, 수원)
 - 2024-2017 ART BUSAN (BEXCO, 부산)
 - 2024-2016 BAMA (BEXCO, 부산)
 - 2024 ONE ART Taipei (Sherwood Taipei, 대만)
 - 2024 INTERMISSION (맥화랑, 부산)
 - 2023-2016 Kiaf SEOUL (COEX, 서울)
 - 2023-2017 10-200, 행복그림전 (맥화랑, 부산)
 - 2023 PAUSE (맥화랑, 부산)
 - 2022-2016 울산국제아트페어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
 - 2022-2016 대구아트페어 (EXCO, 대구)
 - 2020 ONE ART Taipei (Sherwood Taipei, 대만)
 - 2019 ART FORMOSA (타이베이, 대만)
 - 2019 서울국제예술박람회 (서울)
 - 2019 'Sweet Break' 박진성·한충석 2인전 (LOTTE Gallery, 부산)
 - 2018 ART FORMOSA (타이베이, 대만)
 - 2018 아시아 컨템포러리 아트쇼 (Conrad, Hong Kong)
 - 2017 Art Kaohsiung (가오슝, 대만)
 - 2017 Happiness & Love (차병원, 서울)
 - 2017 한국조각가협회전 (금정문화회관, 부산)
 - 2017 Harbour Art Fair (Marcopolo Hote, 홍콩)
 - 2017 ART Formosa (타이베이, 대만)
 - 2017 박진성 한충석 2인전 (갤러리 IN, 부산)
 - 2017 다른 표정 닮은 기억 (BNK아트갤러리, 부산)
 - 2017 LA아트쇼 (LA컨벤션, LA)
 - 2016 Present for present (갤러리 엘르, 서울)
 - 2016 Art Kaohsiung (가오슝, 대만)
 - 2016 봉산미술제 (Soo Gallery, Daegu)
 - 2016 8085전 (Space 1326, 창원)
 - 2016 한국의 조각가 전 (석당미술관, 부산)
 - 2016 춘천야외조각초대전 (춘천MBC, 춘천)
 - 2016 조각으로 꽃을 피우다 (달서구청, 대구)
 - 2016 조각가 그들이 만나다 (무등갤러리, 광주)
 - 2016 한국조각가협회전 (부산시민회관, 부산)
- 그 외 다수.

| 작가노트 |

상처가 익숙해짐으로 순수했던 눈물은 허탈한 웃음이 되고 아름다운 추억이 철없던 행동으로 기억될 때, 사람들은 이것을 어른이라고 말한다. 어른이 될수록 속마음을 잘 표현을 하지 않게 되었다.

내 작업 안에서 <아저씨>라는 존재는 사전적 의미인 중년남성만을 뜻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아버지일수도, 남편일수도, 아니면 자기자신일수도 있는 '익명의 어른'을 대변하는 존재이다. 순수 했던 어린 시절의 아이형상에 주름과 수염을 표현하여 만들어진 특유의 인물상을 통해 가식적이지 않고 꾸밈없는 어른의 내면을 담아 보려 한다. 거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눈물은 현 사회를 살아오며 억눌려 왔던 솔직한 감정의 표출을 의미하고 있다. 어른이 되어가며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으로 치부되며, 참아야 하는 것이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참아온 눈물은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 수많은 현대인들을 괴롭게 한다. 나는 눈물 흘리는 인물상을 통해 가슴속에 쌓아왔던 억눌린 감정들을 표현하고, 다양한 표정과 상황묘사를 통해 행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

어른스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솔직한 자신을 꺼내 놓을 때 진짜 행복이 온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작품에 들어가는 모든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준비라고 말하고 싶다.

새로 진행하는 시리즈 중 하나인 <나와 나> 작업은 기존의 두 명의 인물이 서로 안아주는 형상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괜찮다 괜찮다> 시리즈의 연장선에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나의 작업을 관통하는 큰 메시지 중 하나인 위로는 작업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번 나와 나 시리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완벽한 위로'를 꿈꾸는 작업의 진행과정을 보여준다.

타자를 통한 위로는 나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밟아온 또 다른 자신이 아닌 이상 어느 지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다. 이는 아주 당연한 일이며 완벽한 위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쉽게 알 수 있다.

이제껏 전작에서 보여준 같은 형상의 인물이 서로 끌어안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완벽한 또 다른 자신을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데칼코마니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동작, 크기, 표정, 옷의 주름까지 완전히 대칭되는 형상으로 제작하여 마음의 완벽한 공유를 시각화하여 표현한다.

| 전시서문 |

“행복을 위한 여정 - 눈물의 카타르시스”
박진성개인전 《MISTER》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편적인 성향이 강한 어린 시절의 감정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복합적이게 되고,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아래 마음속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사회성이라는 가면으로 숨기게 된다. 특히 슬픔이라는 감정과 눈물은 부정적인 감정과 낙담의 상징으로 치부되며 참아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여기, 박진성 작가의 작품은 슬픔의 감정과 눈물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며 우리를 위로한다.

어린이의 외형에 민머리, 거뿔거뿔한 수염과 깊은 주름. 한 발자국 떨어진 자리에서 작품을 바라보면 웃음부터 난다.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와 작품을 면밀히 살펴보면 눈에 맺힌 한 방울의 눈물이 보인다. 우스꽝스러운 인물 조각이라 생각하며 웃으며 다가왔다가 ‘아..!’하는 탄식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지만 어디선가 본 것만 같은 인물들. 어린이의 모습 속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박진성 작가의 작품은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인간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1982년생 박진성 작가의 아버지는 경쟁 사회 속에서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삶을 살아온 이 시대의 가장이었다. 자식이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라는 아버지에게 미술가와 예술활동은 불확실한 미래였다. 자유로운 예술 작업을 희망하던 박진성 작가와 그의 아버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부딪혔고, 아버지에게 대한 동경과 작업을 향한 욕구 사이에서의 괴리감은 지속적으로 작가를 괴롭혔다. 가족 간의 대화 자체가 단절되었던 대학 시절,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과 소외감은 갈수록 커져 가족을 벗어난 주변인과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위태로운 현대인’을 작업의 소재로 삼는 계기가 된다. 이후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의 응어리를 가족에게 울분을 토하듯 쏟아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작가는 ‘눈물’을 통한 순수한 감정 표현이 강력한 내적 치유로 작용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회복된 가족과의 관계는 작가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위태로운 현대인을 표현하던 작가는 현재 ‘눈물 흘리는 인물조각상’인 ‘아저씨’라는 독자적인 캐릭터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난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눈물’은 박진성 작가의 작품 속 중요한 포인트이다. 눈물은 슬픔의 감정을 대변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쁨 때나 큰 감동을 받았을 때 역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라는 탈을 쓴 우리는 사회적 시선과 체면 때문에 마음껏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 이 때문에 박진성 작가의 작품 속 눈물 한 방울이 유독 강렬하게 와 닿는다. 관람자는 어린이처럼 보이는 인물 조각에 본인의 모습을 투영하고 눈에 맺힌 눈물에 숨겨있던 본인의 감정들을 대입한다. 실제로 작품을 관람한 관람객이 작품 앞에서 평평 울음을 터트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관람객은 박진성 작가의 조각 속에서 본인의 아버지를, 남편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았으며, 한참을 울고 난 후 후련해진 마음으로 작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작품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정화(淨化)’를 의미한다. 무대 위의 비극을 보으로써 연민이나 공포의 감정을 정화시키며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지는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말이다. 정신분석적 측면에서는 무의식속에 잠겨있는 마음의 상처나 콤플렉스를 말이나 행동, 감정으로써 밖으로 발산시켜 치료하는 정신요법의 일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초기의 작업들이 눈에 맺힌 눈물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대변하는 아저씨가 주된 작업이었고, 이후 같은 맥락 속에서 다양한 오브제들이 등장했다. 눈물 한 방울로 대변했던 감정의 표출을 넘어, ‘위로, 위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꽃 ‘양귀비’와 감정 표현에 서툰 인간을 대변하는 동시에 뾰족한 발톱을 방어기제로 삼은 ‘앵무새’, 모성애와 여성성을 상징하는 ‘분홍빛 덩어리’ 등 시각적으로 풍부한 효과와 함께 ‘위로’와 ‘위안’의 의미로서 오브제가 사용되었다. 오브제와 함께 있는 아저씨를 통해 독백 형식의 ‘자기치유’를 선보였다면, ‘파랑새’의 등장은 ‘행복’의 메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한다. ‘풍선’과 ‘책’도 오브제로 등장했는데 ‘풍선’은 그 동안 마음속에 억눌려 왔던 이야기를 풀어내고 바깥으로 끄집어낸 상징적인 소재로, ‘책’은 그 감정을 글로 풀어낸 시각적 형태로 조형된다. 이러한 오브제들은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아저씨 조각에 시각적으로 풍부한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이번 개인전에는 부조 형태로 만들어진 책 조각 위에 페인팅이 덧입혀진 ‘액자’ 시리즈와 기존 두 명의 인물이 서로를 안아주는 《괜찮다 괜찮다》 시리즈에서 연장된 《나와 나》 시리즈가 새롭게 출품된다. 작가는 작업을 관통하는 큰 메시지 중 하나인 ‘위로’를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데 이번 《나와 나》 시리즈는 ‘나’가 아닌 이상 상대의 입장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발한 이야기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완벽한 위로’를 꿈꾸는 작업의 진행 과정을 보여준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이 마주하는 상황과 그에 따른 감정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이성적 사고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 못지않게 직관과 본능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 감성의 중요성 또한 꾸준히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회적인 체면과 어른이라는 탈 속에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 채 마음 한편에 소모되지 못한 감정의 벽을 쌓는다. 작품 속 모든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준비라고 말하는 작가는 어른스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솔직한 자신을 꺼내 놓을 때 진짜 행복이 온다고 믿는다. 박진성 작가의 작품이 현대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 맥화량 큐레이터 김정원 (2024)

Jinsung PARK 박진성 (b.1982-)

Busan National University, Master of Fine Arts, Busan
Completed a graduate course in fine arts, Dong-eui University.
Dong-eui University, Bachelor of Fine Arts, Busan

| Solo Exhibitions |

2024 MISTER (Gallery MAC, Busan)
2022 HESTORY (Gallery MAC, Busan)
2020 Acquaintance (Gallery MAC, Busan)
2017 (Soo Gallery, Daegu)
2017 self-healing (Gallery Woo, Busan)
2017 (Soo Gallery, Daegu)
2015 (GalerieBhak, Seoul)
2013 (Gallery Songadang, Seoul)
2012 (gallery Soo, Daegu)
2011 Uncle (Gallery Form, Busan)
2010 (Gallery Soo, Daegu)
2010 The Lost City (Gallery Cyart, Seoul)
2009 Strang Circus (Gallery Dami, Daegu)
2009 Strang Circus (Yeonggwang Gallery, Busan)

| Group Exhibitions and Art Fairs |

2024 Korea Galleries Art Fair in Suwon
(SUWON CONVENTION CENTER, Suwon)
2024-2017 ART BUSAN (BEXCO, Busan)
2024-2016 BAMA (BEXCO, Busan)
2024 ONE ART Taipei (Sherwood Taipei, Taiwan)
2024 NTERMISSION (Gallery MAC, Busan)
2023-2016 Kiaf SEOUL (COEX, Seoul)
2023-2017 10-200, Affordable Paintings (Gallery MAC, Busan)
2023 PAUSE (Gallery MAC, Busan)
2022-2016 Ulsan International Art Fair (UECO, Ulsan)
2022-2016 Diaf: Daegu Art Fair (EXCO, Daegu)
2020 ONE ART Taipei (Sherwood Taipei, Taiwan)
2019 ART FORMOSA (Taipei, Taiwan)
2019 Seoul International Art Expo (Seoul)
2019 'Sweet Break' Jinsung PARK & Choongsuk HAN
Two-man Exhibition (LOTTE Gallery, Busan)
2018 ART FORMOSA (Taipei, Taiwan)
2018 Asia Contemporary Art Show (Conrad, Hong Kong)
2017-2016 Art Kaohsiung (Kaohsiung, Taiwan)
2017 Happiness & Love (CHA Medical Group, Seoul)
2017 Busan Sculpture Festival 2017 (Busan Arts Center, Busan)
2017 Harbour Art Fair (Marcopolo Hote, Hong Kong)
2017 ART Formosa (Taipei, Taiwan)
2017 Jinsung PARK & Choongsuk HAN, Two-man Exhibition
(Gallery In, Busan)
2017 Different Looks, Similar Memories (BNK Gallery, Busan)
2017 LA Art Show (LA Convention Center, LA, USA)
2016 Present for Present (Gallery EILE, Busan)
2016 Bongsan Art Fair (Soo Gallery, Daegu)
2016 8085 Exhibition (Space 1326, Changwon)
2016 Korean Sculptors (Seokdang Museum of Art, Busan)
2016 Invitational Exhibition of Modern Korean Sculpture
(Chuncheon MBC, Chuncheon)

2016 Flowering with Sculpture (Dalseo-gu Office, Daegu)
2016 Sculptors Meet (Mudeung Gallery, Gwangju)
2016 Korean Sculptor's Association Exhibition (Busan Civic Center, Busan)
etc.

| Colection |

Busan Western District Office, BNK, SAEWHA Hospital, DAESUN
Distilling Co., Ltd, SERVAN Industries Co., Ltd, HYOHAN Electric Co.,
Ltd, Jeonpo Yulim Norwaysup, Etc.

| Summary |

The existence in the work of the artist Jinsung Park (Ajeossi) does not refer only to a middle-aged man in the dictionary sense. A being who represents an "anonymous adult" who may be someone's father, husband, or himself. The artist intended to capture the inner world of unpretentious, artless adults through the peculiar character created by adding wrinkles and a light mustache to a child's face. The artist expresses the repressed emotions that have been built up in his heart through the image of a tearful figure, and tries to convey a message of happiness and comfort through various facial expressions and situational descriptions. He believes that real happiness comes when he lets go of adulthood for a moment and lets out of his honest self.

| Artist Statement |

We feel that we have at last come of age when we are able to give a hollow smile to our wounds and grief and realize our beautiful memories as something immature. The more we grow up, the less we open our hearts.

Ajeossi in my work does not merely mean "middle-aged man" as its dictionary definition. He represents "an anonymous adult" who may be one's father, husband, or himself. I intended to capture the inner world of unpretentious, artless adults through the peculiar character created by adding wrinkles and a light mustache to a child's face. Tears in almost all my works stand for an honest expression of one's feelings oppressed in our society. Tears shed by adults are regarded as a sign of weakness that should be held back. These repressed tears leave contemporary people with a lot of hard feelings in their hearts. I try to express suppressed emotions through a character who sheds tears and convey the messages of happiness and solace through his diverse facial expressions and description of various situations.

I believe I could be truly happy when I disclose my true self without sticking to the trappings of adulthood. Thus, I'd like to define every tear in my works as an act for happiness.

– Jinsung PARK (2020)